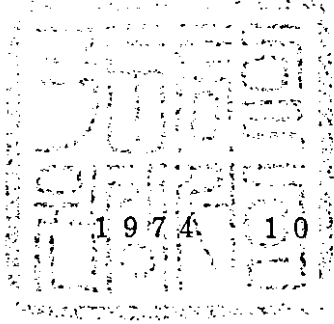


現段階 韓國統一問題에 對한
國民的 期待評價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国土統一院 1974年度 下半期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 합니다.

1974年 10月 日

全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責任者 丁 得 圭

第一部 統一問題의 性格	3
1. 分断의 背景	3
2. 統一의 要請	6
3. 統一의 概念	11
4. 統一의 原則	13
5. 統一의 要件	14
6. 統一의 時期	18
第二部 韓國의 統一政策	21
1. 韓國統一 方案의 變遷過程	21
2. 平和統一의 中長期 構想	28
3. 政府의 平和統一 努力	31
4. UN을 통한 統一에의 接近	36
5. 非政治分野 優先主張의 內容	40
6. 不可侵協定 提議의 正當性	42
7. 政府의 統一政策의 理論的 背景	46

第一部 統一問題의 性格

1. 分斷의 背景

韓半島의 分斷은 歷史的으로 國際權力 政治的 背景을 갖고 있다. 第二次 世界大戰이 끝날 무렵인 1945年 2月 美, 英, 蘇 三大國들은 「알타」에서 會談을 갖고 蘇聯의 對日參戰을 隨約받고 그 代價로 戰後處理에 있어서 1905年 露日戰爭의 結果로 日本에게 약탈당한 華太南部의 諸島嶼에 對한 領土의 返還과 外蒙古의 現狀維持를 비롯해서 滿洲등 極東地域에 對한 旧勢力範圍과 諸權益의 回復을 約束받음으로써 帝政「러시아」때부터 追求해 오던 傳統的인 南進政策 (不凍港政策)을 굳히게 되었다.

蘇聯은 이미 帝政「러시아」當時 日本과의 勢力均衡 政策을 維持하기 위해 한때 北緯38度線을 境界로 勢力均衡論을 提議한 일이 있거니와 「알타」 會談에서도 韓半島를 38度線으로 分割해야 한다는 主張을 되풀이 하면서 對極東政策에의 膨脹意圖를 明白히 했다.

이와같은 蘇聯의 膨脹主義的 企圖는 韓半島에 對해 어느 한 強大國의 獨占的 勢力圈으로 認定할 수 없다는 態度를 取하고 있던 聯合國들의 利害關係와 結付되어 우리 民族의 運命을 列強政治의 犧牲物로 만들고야 말았다.

1945年 8月 15日 太平洋地區 聯合軍司令官인 「맥아더」將軍이 公布한 「一般命令第1号」는 韓半島 38度線以南에 있는 日本軍隊는 美軍에게 그리고 以北에 있는 日本軍은 蘇聯軍에게 降伏하도록 指示하여 美, 蘇 兩軍에 依한 韓半島分割占領을 公式化했다. 그러나 美陸軍長官에 의해 作成된 그 文書가 단순한 軍事作戰上의 必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政治的 考慮에 依한 것이었는지 또는 戰時 聯合國會議 特히 「카이로」會談 및 「알타」會談에서 이루어진 어떤 公約을 履行하기 위한 措置였는지에 關해서는 아직도 分明치 않다.

아무튼 38度線을 分界로 한 美, 蘇 兩軍의 進駐는 韓半島에 兩個의 軍政을 招來했고 감정적이기를 바랬던 38度線은 始初부터 軍事的 意味 以上の 複雜性을 띠면서 單一民族의 統一을 阻害하는 장벽으로 굳혀지고 말았으며 이것이 時間이 지남에 따라 事實上 하나의 政治的 分界線으로 굳어가고 말았다.

이러한 事態를 是正하기 위해 美軍司令官은 北韓駐屯 蘇聯司令官에게 協商을 提議했으나 이 提議에 對한 蘇聯側의 非妥協的 態度를 確認한 美軍司令官은 이 問題를 보다 높은 次元에서 取扱해줄것을 美國政府에 建議하게 되었으며 이 建議要請에 따라 1945年 12月 美, 英, 蘇 三大國外相會議가 「모스크바」에서 開催되었고 後에 中國도 參加하게 되었다

[補]

이 會議에서 全韓國을 通한 暫定的인 民主政府 (a provisional democratic Government) 樹立을 위한 協定에 合意했다.

이 會議에서 韓國에 駐屯하고 있는 美, 蘇兩軍司令官으로써 美, 蘇 共同委員會 (Joint Commission of the American and Soviet Commands in Korea) 를 設置하고 韓國에 있는 民主的인 政黨 및 社會團體와 協議하여 4個國政府에 對하여 暫定的인 韓國政府의 樹立

에 關하여 勸告하도록 決定하였다.

서울에서 開催된 美, 蘇 共同委員會는 1946年 3月과 1947年 5月 二次에 걸쳐 會晤를 가졌으나 蘇聯이 臨時政府 樹立에 關한 협의대상에서 信託統治를 反對하는 政黨과 社會團體를 除外하자는 主張을 거듭함으로써 아무런 成果를 얻을수가 없었다.

이러한 膠着狀態를 打開하기 위하여 美國代表는 1947年 8月 다시 「모스크바」會談을 제의했으나 蘇聯의 拒否로 좌절되고 말았다.

「모스크바」協定の 테두리안에서 蘇聯과 더 以上 直接 交涉하는 것이 無意味하다는 것을 認識한 美國은 1947年 9月17日 韓國獨立問題를 UN에 上程했는데 이로 因해서 韓國問題가 UN과 인연을 맺는 契機가 되었다. 그러나 蘇聯은 韓國獨立問題의 UN上程 自体가 「모스크바」協定の 違反이라고 非難했던 것이다. 그러나 UN總會는 1947年 11月14日 韓國獨立의 節次를 規定하는 美國의 決議案을 採擇하여 UN韓國臨時委員團을 設置하고 同委員團으로 하여금 統一, 獨立, 民主의 韓國政府樹立을 위한 全韓半島 自由選舉 實施에 必要한 措置를 取하도록 委任하였다. UN韓國臨時委員團은 蘇聯의 協力 拒否와 38度線以北에의 入北拒否에 부딪쳤으나 어떠한 UN小總會는 1948年 2月26日 全韓半島를 통한 選舉監視가 不可能할 境遇 委員團이 接近possible한 南韓에서만이라도 選舉監視에 임해야 한다는 決議를 하였다. 이리하여 同年 5月10日에는 總選舉가 實施되어 8月 15日 드디어 大韓民國政府의 樹立을 보게 되고 UN은 大韓民國을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only lawful government)로 承認하였다.

한편 蘇聯軍政下의 北韓에서는 1946年 2月 事實上的 共產政權인 北韓人民委員會가 組織되고 1947年 11月 蘇聯軍政當局에 依해 憲法起草委員會가 任命되었으며 1948年 9月9日 金日成을 頂點으로한 共產主義 統治機構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後 蘇聯은 1950年 北韓 共產主義者들을 使喚하여 全韓半島의 武力赤化를 企圖하였으나 우리는 UN軍의 支援으로 그러한 危機를 克服하였다.

休戰協定の 成立과 더불어 軍事分界線이 38度線에 代置되는 새로 운 分斷線으로 化하였고 以後 오늘날 까지 南北韓을 完全히 隔라놓 는 境界線이 되고 있다.

2. 統一의 要請

祖國의 統一問題는 흔히 民族的 念願 또는 歷史的 要求라는 當 爲性으로 規定되고 있다.

우리는 祖國統一에 對한 信念과 統一課業을 기필코 完遂해야 한다는 歷史的 使命을 다짐하기 위하여 統一의 必要性을 새삼 羅認해 불 必喪가 있다. 韓半島統一의 必要性은 대개 다음과 같은 4가지 側 面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즉 ① 民族史的 側面 ② 人道主義的 側面 ③ 國家發展의 側面 ④ 國際政治的 側面등이 그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祖國統一의 民族史的 要請을 檢討해 보자. 우리는 三國時代에서 一時的인 分裂의 歷史를 가지고 있지만 古來로 單一民 族으로서의 빛나는 文化的 傳統을 創造 發展 繼承시켜 왔으며 數 많은 國難과 外敵의 侵入에도 不拘하고 民族共同運命體로서의 民族的 團結 力을 유감없이 發揮하고 團合된 民族의 底力을 면면히 이어왔다.

이와같은 民族의 무궁한 生命力은 日帝의 暴虐아래 民族史의 断切의 危機를 經驗하면서도 끈질긴 저항을 可能하게 했다.

그러나 第2次 世界大戰의 終了와 더불어 새로운 民族史의 光復을 맞이한 祖国은 不幸하게도 外勢에 依한 人爲的인 民族分裂을 強要당하였으며 이와같은 不幸은 歴史를 通해서 形成 發展되어온 單一民族으로서의 自負心에 큰 傷處를 안겨 주었다.

더우기 分断된 한편의 北韓地域에서는 共產主義에 依해서 우리의 文化的 傳統이 여지없이 破壞되고 있다는 事實을 생각할때 民族的 矜持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며 光復과 建設의 새 歷史를 創造하는 우형찬 隊列에 民族의 一部가 參與하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에 안타까움을 禁할 수 없는 것이다.

悠久한 民族의 文化的 傳統을 繼承 發展시키고 民族的 團結의 새 歷史를 創造하기 위해서 그리고 民族的인 自負心과 矜持의 손상을 回復하기 위하여 祖国의 統一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

[補]

우리 民族은 世界에서도 類例가 드문 單一民族으로서 훌륭하고도 빛나는 文化와 傳統을 가진 文化民族임은 우리 民族만이 가질수 있는 獨特한 民族의 矜持가 아닐수 없다. 이러한 民族의 예지와 底力이 數많은 民族史의 苦難과 試鍊을 克服할 수 있었던 源泉的인 힘이 되었다고 믿는다.

日本帝國主義의 강탈적인 侵略政策에도 屈하지 않고 우리 民族은 줄기찬 獨立鬪爭運動을 展開하여 마침내 光復을 되찾았다.

그러나 強大國의 權力政治的 所産으로 單一民族의 生存터전 위에 分割의 線이 그어졌고 이 線은 民族의 分斷을 永久化한 원한의 38 線으로 굳혀져서 時間이 가면 갈수록 民族의 異質性이 擴大 深化되어 單一民族의 矜持를 喪失할지도 모르는 可能性을 안고 있는 것이다. 小數 共產主義者들에 依해서 強副當하고 있는 北韓社會에 있어서의 民族同質性의 回復은 分斷된 四分世紀 동안에도 놀랄만큼 切實한 民族的 課題로 提起되고 있다.

民族의 高貴함과 民族의 將來問題에 對해서도 一沫의 양심마저 갖고 있지 않는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武力赤化를 위해 同族相殘의 悲劇을 거리낌없이 敢行했고 休戰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도 數 많은 挑發을 姿行하는 등 이 民族의 양심과 民族의 審判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行爲를 犯하고 있다.

이 民族의 運命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엄숙한 岐路에서 南北間에 戰爭은 어떻게 해서든지 避해야 하겠고 또 南北間의 對話는 民族統一의 第1 段階로서 꼭 成就해야 할 民族課題로 確信하고 우리는 民族史的 要請에서 民族統一의 基盤을 着實히 構築해 가야 하겠다.

이것을 잃어버린 北韓同胞를 되찾는 우리의 責務이기도 한 것이며 統一의 當爲性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둘째는 人道的 見地에서 볼때는 祖國의 統一은 기필코 達成되어야 한다. 人爲的인 國土分斷은 수많은 同胞들에게 人間으로서의 참을수 없는 苦痛을 안겨 주었다. 우리는 文化, 風俗, 言語, 人種에 있어서 世界의 다른 어떤 民族보다도 큰 同質性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全民族은 거의 血緣的으로 結合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南北間에 家族과 친척이 헤어져 生死의 消息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離散家族의 數가 近1천萬에 達하고 있다. 이들 離散家族의 苦痛을 解消하기 爲해 統一은 期必코 이루어져야 한다.

더우기 共產治下에서 人間的 權利와 生存을 박탈당한 채 暴政과 專制에 눌려 살고 있는 北韓同胞들을 救出해야 한다는 民主國家國民의 使命感에 비추어 볼때 祖國統一은 더욱 切實해진다.

[補]

民族分斷의 狀態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우리 民族이 겪어야 할 現實的인 人道的 悲劇과 將來에 있어서의 人道的 悲劇등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離散家族의 苦痛이 現實的으로 強要되는 人道的 悲劇이라고 한다면 將次에 있어서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姿行할지도 모르는 對南 武力赤化統一 過程에서 밋어지는 非人道的 悲劇과 또 이 武力赤化統一을 準備하기 爲해 共產主義者들이 北韓同胞에게 強要하는 非人道的 착취와 勞役등 같은 犧牲의 強要는 더욱 強化될 것이다. 이러한 人道的 悲劇을 根本的으로 解決하기 爲한 根本的 方法으로서도 統一의 設請은 더욱 強調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國家發展이라는 百年大計을 爲해서도 統一은 必要하다. 經濟的 發展이나 安全保障問題는 國家發展의 基本要件이며 同時에 追求해야 할 目標이기도 하다. 國土分斷과 民族의 分裂은 經濟的 發展의 阻害要素로 作用해 왔으며 國家安保라는 側面에서 볼 때 항상 戰爭의 可能性을 안고 있는 不安要因을 야기시켜 왔다.

우선 經濟的 側面에서 볼 때 南北韓의 地理的 條件 資源分布의 差異, 다시 말해서 南쪽의 農産資源과 北쪽의 地下資源의 分布度로 보아 産業構造上 南北의 相互補完關係를 理想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볼때 統一은 國家經濟發展을 調和 促進하는데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갖고 있다.

安保的 側面에서도 國土의 分斷狀態 더우기 莫強한 軍事力의 對峙狀態는 韓半島의 緊張, 더 나아가서는 東北亞의 緊張要因이 되고 있으며 世界平和의 威脅要素가 되고 있다.

한편 相互間의 武力增強이나 軍隊維持에 사용되는 막대한 國防費는 經濟發展이나 國民福祉에 投入될 수 있는 많은 資源을 消耗하여 不必要한 經濟的 負擔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國際政治的 側面에서 祖國統一의 要請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와 같은 한 民族이 하나의 國家로서 統一된다면 國際政治社會에서 보다 確固한 地位와 信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民族이 分裂되어 서로 同族相殘을 거듭하게 되면 國際的 信賴와 地位를 획득하기는 커녕 오히려 國際社會의 秩序를 어지럽히는 存在로 소의당하거나 스스로 自滅만을 自招할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國際社會의 當당한 一員으로서 國家의 地位를 確保하기 위해서는 統一된 民族國家의 形成이 무엇보다 時急히 要請된다고 하겠다

[補]

國際權力政治의 소용들이 속에서 他律的으로 強要된 民族分斷의 悲劇을 自律的으로 克服해 갈수있는 民族力量과 知慧를 길러 平和

만을 追求했던 民族의 기상을 드높여가야 하겠다.

오늘의 國際情勢가 비록 韓半島의 現狀을 凍結하는 現狀維持의 政策을 周辺強大國들이 希求한다하더라도 平和共存의 基調위에서 南北의 統一接近은 不斷이 試圖되어져야 할것으로 본다.

이제 萬若 우리 民族이 지난 6.25와 같은 同族相殘의 悲劇을 또다시 되풀이 한다면 이 地球上에서 가장 賤한 民族으로 멸시될 것이며 破滅을 면치 못할 것임을 眞正으로 自覺해야 할것이다.

3. 統一의 概念

統一의 概念은 궁극적으로 統一된 狀態에 對한 비론과 統一로 接近해가는 過程上의 論理를 內容으로 하고 있다.

南北韓間에는 統一의 名分을 다같이 認定하고 있는 點에서 一致하고 있으나 실제 統一된 狀態 또는 統一過程에 對한 定義方法에 있어서는 相當한 意見 差異를 볼 수 있다.

우리는 韓半島의 궁극적인 統一狀態를 民主的인 民族國家의 完成으로 規定하고 그러한 最終段階에 到達하는 過程에서 民族的인 和合과 同質性의 回復이라는 平和的 段階를 設定하고 있다. 이와같은 統一概念의 段階性은 종래의 領土의 收復이나 合竝이라는 冷戰的 論理를 克服할 수 있는 現爽的 長點을 갖는 代案으로 理解되고 있다.

이에 反해서 北韓側의 統一概念을 궁극적으로 全韓半島의 共產化라는 目標로 設定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北韓側의 統一概念은 北韓地域을 革命의 基地로 強化하여 共產化革命을 南半部에 까지 拡張한다는 이른바 革命의 論理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北韓側은 그와같은 共產化革命을 達成하기 위한 過程으로써 合作 또는 統一戰線이라는 戰術的 手段形態를 가지고 있는바北韓이 말하는 統一概念은 궁극적인 共產化革命 達成이라는 目標로서의 統一과 一時的이고 可變的인 手段으로서의 統一을 同時에 意味하는 二重的 概念으로 理解해야 한다.

한마디로 統一에 對한 우리의 概念定義方法은 平和的 段階的인데 反해北韓側의 定義는 侵略的 革命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統一로 가는 過程에서도 우리는 機能的 接近方法을 採擇하고 있는데 反해北韓은 戰術的 接近方法을 採擇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의 統一概念이 民族의 原理를 當爲로 삼고 있는데 反해北韓側은 共產主義原理에 집착하고 있다.

[補]

分斷國의 民族的 統一은 民族의 生存과 民族의 繁榮이란 基礎위에서 推進되고 達成되어야 함은 當然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統一의 基本要素로서의 民族主体性을 強調하게 되는바 民族의 選擇에 依해 民族의 運命을 決定해야 한다는 論理는 民主的 統合方式에 依한 統一概念의 定立을 不可避하게 要請하고 있다.

北韓 共產主義體制과 韓國의 自由民主的 體制下의 比較는 感傷的인 次元을 넘어 이미 世界가 周知하고 있는 事實이다.

統一은 南北韓의 自由스러운 交流와 往來등 最小限度의 豫備的 交涉段階를 거쳐 公正하고 自由스러운 選舉管理下에서 이 民族 大多數가 選擇하는 政府를 樹立하는 形式을 하는것이 合理的인 方法이라

할 것이다.

4. 統一의 原則

韓國統一을 論하는데 있어서는 몇個의 當爲命題가 있다.

첫째는, 統一된 韓國의 政治命題는 自由民主主義的인 體系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統一을 바라는 理由는 우리 民族이 統一된 自由民主的인 政治體制下에서 살고자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赤化統一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며 만일 統一이라는 것이 共產體制下에서의 統一을 意味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統一은 否定되어야 한다.

둘째로, 韓國의 統一이라는 것은 平和的인 方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同族相殘이라는 것을 또 한번 겪어야 하고 韓半島에 있어서 한 民族이 다시 戰爭이라는 悲劇을 겪어야만 統一을 이룩할 수 있다면 이것은 決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셋째는, 韓國의 統一이라는것은 亞細亞의 平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世界의 平和를 위해서 절대로 必須不可欠한 것이다」라는 命題다.

다시 말하면 韓國民族이 統一을 이루지 못하고 分斷된 狀態下에서 存在하는 限 亞細亞의 平和와 世界平和라는 것은 바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넷째로, 統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 民族自身の 힘으로 自主的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4大強國이라던가 또는 其他 다른 나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一定한 形態의 統一이라는 것을 強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일 수는 없다는 點이다.

우리가 統一을 이룩할 때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바라는 形態의 統一을 追求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命題들은 統一을 위해 努力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指針이 되는 것이며 同時에 또 테두리의 役割을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前提로 할때만 우리의 統一이라는것이 참으로 우리 民族을 위해서 有益하고 바람직한 未來像이 될것이고 또 그래야만 한 民族 全体가 그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 共同으로 努力할 수 있는 것이된다.

5. 統一의 要件

5천萬 韓民族의 念願인 祖國統一의 大業을 成就하기 爲하여 朴正熙大統領은 1972年 6月23日 内外에 천명한 새로운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의 첫 項目에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우리民族의 至上 課業이다.

우리는 이를 成就하기 위한 모든 努力을 계속 경주한다」고 言明하였던바 이것은 5천萬 全民族의 굳은 決意를 다시 한번 되새긴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 民族至上의 課業인 나라의 統一은 그렇게 容易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條件을 안고있다.

그것은 韓半島의 南北 双方이 自由民主主義와 共產主義라는 理念과 價值觀 그리고 歷史적으로 다른 두 體制로 對立되어 있으며 双方

은 各己 自己體制을 固守하려는 確固不動한 決意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우리 韓半島에 安定된 平和가 構築되지 못하고 平和統一을 성취하는데 장애가 되는 가장 큰 根本要因은 두말할 것도 없이 北韓 共產集團이 南韓을 赤化함으로써만이 祖國統一을 이룩하겠다는 一種의 「征服統一」路線에 立脚하여 그를 實現시키기 위해 온갖 挑戰을 企圖하는데 있는것이다.

北韓 金日成의 主張은 「祖國統一의 課題는 南에서 美軍이 撤収하고 人民 民主主義가 勝利하여 政權을 잡아 北의 社會主義 力量과 南의 民主主義 力量의 團合된 힘에 依해서만 成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祖國統一은 南韓革命이 遂行되는 條件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며 韓國에서 「反帝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遂行함으로써만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祖國統一은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旗幟아래 民族解放革命을 全國的인 범위에서 完遂하는것」이라고 規定하고 「祖國統一의 實現 方法에는 平和的 非平和的 方法이 있을수 있으나 南韓革命의 遂行에는 오직 폭력적 方法밖에는 없다」라고 明白히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韓半島의 統一條件이 不利한 狀況下에서 南北韓의 統一條件을 成就시킬 수 있는 要件은 果然 무엇인가?

韓半島의 統一條件으로는 첫째 北韓이 武力赤化統一 野慾을 拋棄함으로써 韓半島에 平和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의 金日成이 韓半島赤化를 爲한 武力征服 統一을 固執하는 限 韓半島에는 平和도 統一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平和統一을 成就하기 위해서 金日成 스스로가 赤化武力統一野慾을 포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우리의 国力을 培養하여 北韓보다 優越한 힘

을 질러야 한다.

〔補〕

1950年 6.25의 民族悲劇이 일어난 要因의 하나도 우리의 防衛態勢에 虛點이 있었기 때문에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南侵을 企圖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北韓은 休戰以來 지금까지 武力南侵 準備를 不斷히 서둘러 왔고 近來에는 四大軍事路線에 따라 北韓全域을 兵營化 乃至 全人民을 武裝化하여 機會만 있으면 南侵을 敢行할 決定的 時期만을 노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萬一 우리의 国力이 北韓에 比해 劣勢에 있거나 虛點이 들어나면 언젠지 攻擊을 當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또다시 民族相殘의 悲劇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国力을 튼튼히 질러 北韓 共產主義者들의 誤算에 依한 武力挑発을 拋棄토록 하고 좌절시켜야 할 것이다 優越한 国力의 背景만이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統一을 앞당기는 唯一한 길이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朴正熙大統領은 「民族의 宿願인 祖國統一의 條件을 改善하기 위한 우리의 平和統一外交 政策」으로서 6.23 特別宣言을 發表하고 同宣言 第2項에서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強調하고 「南北韓은 서로 內政干渉을 하지 말아야 하며 侵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둘째 南北間에 同質性이 回復되어야 한다. 戰後 分斷 4半世紀

以來 形成되어 온 南北間의 異質化 過程 卽 民族的 同質性(National Identity)의 變質은 統一을 沮害하는 基本要素中の 하나이다. 現在 南北間에는 外交 國防財政등의 分野에서는 完全히 容納되기 힘든 「이데올로기」를 構成 原理로 하여 異質體制가 確立되었고 教育文化의 分野에서도 南北間의 社会的 過程의 差異때문에 異質化가 急速히 進行되고 있는 實情이다. 南北間에는 民族에 관한 概念定義가 달라졌고 歷史를 分析하는 方式이 달라지고 있으며 國民教育의 目的과 方向도 다르고 심지어 우리 民族의 共通된 言語生活에서 마저 異質化가 進行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祖國의 統一을 이룩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南北間의 異質化 現象을 除去해야 하고 民族의 同質性を 回復해야 한다.

元來 韓民族은 5천年 歷史를 가진 單一民族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韓半島에 平和가 定着되어 이른바 南北間의 平和共存體制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民族的 同質性的 回復이 急速히 進展될 것이다. 이러한 民族的 同質性的 回復은 必要不可欠한 統一의 基本要件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困難이 있더라도 南北間의 對話와 交流는 推進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째, 国力을 培養하여 民主的 力量을 強化해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의 武力赤化野慾을 拋棄케 하여 平和統一의 길을 마련하고 共產主義와의 對決에서 民主主義의 勝利를 保障하는 根本方策은 바로 우리의 国力培養 뿐이다. 더우기 對話를 통한 善意的 競爭을 南北間에 試圖하고 있는 지금, 實力으로서 善意的 競爭을 통해 國民의 呼応을 받으면서 北韓住民을 우리의 自由民主主義體制에 同化하도록 유도하려면 우리의 国力이 決定的인 要因이 되지 않을 수 없다.

〔補〕

넷째. 韓半島를 둘러싼 4大強國들의 對韓政策이 南北統一에의 接近을 極端적으로 反對하지 않도록 伸縮性있게 調整하는 外交關係를 設定해가야 하겠다.

이것은 南北韓의 民族主体性에 바탕을 둔 統一外交의 基調이어야 하는 同時에 周辺強大國들이 分斷國의 現狀 凍結化 政策을 追求하는 立場을 能動的으로 打決해 가야할 問題인 것이다.

6. 統一의 時期

南北統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것은 將來에 對한 確率性이 없는 예측에 不過한 것이다.

現在로서 統一의 實現時期에 關해서 確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統一을 갈망하는 韓國人에게는 統一의 時期를 짐쳐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도저히 確실한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對한 여러가지 臆측이라도 해보자고 하는것이 韓國人의 心情이다.

그뿐만 아니라 韓半島의 統一問題를 論하는데 있어서 이 問題에 對한 接近方法이나 關心이 統一의 實現時期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反對로 統一에 對한 方案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中 어느것을 擇하느냐에 따라서 統一의 時期가 늦추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다. 統一에의 接近을 論하는데 있어서 論者가 統一의 時期를 언제로 잡고 있느냐하는 것을 밝혀야만 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統一의 時期는 韓民族으로서는 可能한 限 早速한 것으로 잡고 싶어하는 것은 勿論이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되기를 願한다고 해서 반드시 빨리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충족적인 예언」이라는 概念이 社会心理学에는 있다.

즉 어떠한 事態가 어느때까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確信하고 行動하면 自然히 그것이 實現될 可能性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이러한 理論이 實際로 妥當性을 갖는 것은 事實이다.

個人生活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國家生活에 있어서 또 妥當性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統一의 時期를 잡는데 있어서 「자기충족적인 예언」의 理論을 너무 性急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 國際環境이나 分斷의 歷史, 南北間의 적개심 등이 統一의 時期를 너무 촉박하게 잡는것을 許容하지 않고 있다. 일정한 時限을 이제부터라도 設定해 놓고 그것을 達成하기 위하여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다는 立場에 서기는 어렵다. 同族相殘을 避해야 한다든가 赤化統一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등의 制約條件들이 있다. 이러한 制約條件들이 「자기충족적인 예언」의 原則이 作用하는것도 制約하고 있다. 結局 統一의 時期를 가까운 將來보다는 比較的 먼將來에다가 잡게하는 原因이 주로 이러한 制約條件들에게 있다. 統一에의 接近에 있어서 戰爭과 赤化는 接近方法으로서 排除되어야 한다. 아마도 統一의 時期를 너무 가까운 將來에 設定하지 않는것이 同族相殘이나 赤化統一의 可能性을 감소내지는 除去해 주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統一의 時期를 너무 촉박하게 잡으면 統一이라는것이 民族의 統合이라는 기쁨을 가져다주기 보다는 오히려 流血 或은 自由의 상실이라는 悲劇을 가져다줄 위험성이 있다.

大韓民國이 統一에 있어서의 主導權을 잡기 위해서도 統一의 時期는 너무 촉박하게 잡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韓國이 自由民主主義下에서의 自主적인 統一을 이루고자 主導權을 장악하고자 하면 国力을 充分히 培養할 必要가 있다. 北韓의 경우와 같이 赤化統一을 위하여 暴力方式도 불사하고 民族相殘의 悲劇도 오히려 正當化하겠다는 것과는 달리 大韓民國의 統一에의 主導權은 어디까지나 平和적으로 自由民主主義의 배두리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制限條件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統一의 時期를 너무 촉박하게 잡지 않고 신중하게 이에 接近해야 한다. 統一韓國이 國際政治面에서 中立路線을 取하느냐 或은 聯邦制를 擇하느냐 等等의 條件으로 말미암아 統一의 時期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

이웃의 어느나라와도 特殊한 排他的인 關係를 갖지 않는 狀態, 다시 말하면 어느나라의 勢力圈속에 全적으로 豫속됨이 없이 平和的이며 自主적인 路線을 取해 나가는 政治單位가 우리가 바라는 統一韓國의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가 自主적이며 自由民主主義的인 統一韓國을 追求하는 것이 統一의 實現을 促進시키는 方法이 될 것이다.

中立이란 消極的인 概念이다. 오히려 우리는 獨自的인 路線을 걸어가는 國際面에서의 自主性이 보다 더 能動的으로 우리의 統一韓國을 볼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다. 남이 保障해 주는 獨立이란 하나의 過渡的인 現象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힘으로 獨立을 保障해 나갈 수 있을 때만 진정한 意味에서의 統一과 政治的인 成熟이 이루어질 수 있다. 聯邦制도 하나의 過渡的인 段階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手段이지 目的일 수는 決코 없다.

第二部 韓國의 統一政策

1. 韓國統一方案의 變動過程

大韓民國政府는 政府樹立以來 統一問題를 國家政策의 基本으로 삼고 여러가지 可能한 方案들을 모색해 왔다.

大韓民國 政府樹立以來 政府가 提示해온 統一政策의 變遷過程은 便宜上 ① 政府樹立以後 勳亂 休戰까지 ② 「제네바」會談以後 4.19까지 ③ 4.19以後 5.16까지 ④ 5.16以後 10月維新까지의 4段階로 나누워 考察해 볼 수 있다.

(1) 政府樹立以後 勳亂休戰까지

大韓民國政府는 1948年 8月 15日 獨立政府樹立을 内外에 宣布하고 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方案으로 다음과 같은 內容을 闡明하였다.

즉 ① 大韓民國政府는 憲法의 規定에 따라 全韓半島에 걸쳐 主權을 갖는 唯一合法政府임을 宣稱하고,

② 選擧가 保留된 北韓에서 조속히 民主的選擧를 實施하여 國會에 空席으로 남겨둔 100席의 議席을 채우도록 促求하며,

③ 北韓收復은 北韓同胞들의 自發的意思想에 依하여 성취될수도 있지만 그러한 北韓住民의 自由意思가 계속 封鎖되는 경우에는 武力에 의해서라도 北韓에 對한 主權을 回復할 權限이 있음을 明白히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와같은 統一方案은 먼저 平和的方法에 依한 統一을 모색하고 그것이 不可能할 경우는 武力에 依한 統一도 不辭한다는 것으로 大韓民國이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라는 主張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러한 兩面的 手段에 의한 統韓原則은 1960年 4月革命에 이르기까지 自由黨政府의 基本立場으로 固守돼 왔으나 그後 內容

은 다소 修正되었다.

韓國政府는 1948年 12月 12日 3次 UN總會決議에 依해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로 公認되었고 全韓半島의 完全獨立과 自由選舉에 依한 統一政府樹立을 지원하려는 UN의 目的을 존중하여 南韓內 UN의 活動에 積極 協助하였다.

1950年 6月 25日 北韓共產主義者들은 武力南侵을 敢行하여 「平和統一」이라는 美名으로 偽裝된 武力統一의 野慾을 들어내게 되자 動亂中 韓國政府는 「憲法節次에 依한 統一」을 「武力에 依한 統一」로 감정적인 政策 振換을 하였다. 1950年 10月 李承晩大統領은 收復된 北韓地域에 對한 行政權을 大韓民國이 行使한다는 見解를 表明하였고 第6次 UN總會에서는 北韓에서만 UN監視下 自由選舉를 實施할것을 主張하였다.

그後 休戰協商의 기운이 성숙해지자 李大統領은 어떤 休戰도 反對하여 北進統一을 爲한 單獨俄國의 決意를 闡明하였으나 1953年 7月 28日 다시 「UN과의 協調에 依한 統一」로 態度를 바꾸어 다시 UN을 통한 統韓原則으로 복귀하였다. 한편 同年 11月 23日 李大統領은 特別聲明을 通하여 「北韓만의 選舉로 國會의 殘餘議席을 채우는 것이 原則이나 北韓住民이 願한다면 全國總選舉를 받아들일 用意가 있다」고 밝혀 「北韓地域만의 選舉」로 부터 「全國總選」으로의 政策的인 振換을 보여주었다.

(2) 「제네바」會談以後 4.19 까지

休戰協定에 따라 韓國問題의 平和的解決을 모색하기 爲한 高位 政治會談이 1954年 4月부터 6月까지 「제네바」에서 開演되었다.

이 會議에 參席한 當時 外務部長官 卞榮泰氏는 韓國統一에 関한

14 個項目의 綜合的 提案을 내놓았는데 그 內容의 骨子는 다음과 같다.

- ① 6 個月內에 UN 監視下에 大韓民國憲法節次에 따라 비밀 보통 투표에 의한 南北韓을 통한 自由選舉 實施
- ② 選舉區의 正確한 人口比例에 따라 새로 國會議員數를 定하기 爲해 UN 監視下에 國勢調査를 實施
- ③ UN 監視員團 및 立候補者의 活動 및 言論에 關한 完全한 自由保障
- ④ 總選後 서울에서 開催될 全韓國立法府가 새로 憲法을 改正하기까지는 大韓民國憲法이 계속 効力維持
- ⑤ 選舉日 1 個月前까지 中共軍의 完全撤収
- ⑥ UN 軍의 撤収開始 但 UN 軍의 撤収는 統一政府가 全韓國에 對한 完全統治를 達成하고 이를 UN이 確認할때 終了

以上과 같은 建設的提案에 對해서 北韓側은 UN의 監視役制을 確認할 수 없다는 理由로 全面的인 拒否態度로 일관하고 터무니없는 「平和的解決」云云하면서 會談을 尙書적인 選任의 場所로 濫利用하였다. 「제네바」會談이 2 個月間의 討議를 거치면서도 아무런 성과를 걸지 못하고 決裂되자 韓國側은 共產主義者들과의 協商이 無益하다는 結論에 到達하였으며 한편으로 休戰協定의 파기와 戰爭再開論과 같은 強硬한 立場까지 대두되어 「單獨北進統一論」과 「UN 監視下 北韓만의 選舉論」이 다시 主張되게 되었다.

한마디로 李承晚 自由黨政府의 統一方案은 UN에 依한 統一이라는 名分을 철회하지는 않았으나 實際로 武力的方法에 依한 北韓地域收復이라는 強硬立場을 維持하여 事實上 平和的統一方案을 不信하는 立場이었다. 이와같은 自由黨政府의 統一方案은 國際情勢가 冷戰에 依한

東西兩陣營間의 緊張이 極度로 高潮되어있던 狀況과 特히 動亂中과 같이 統一을 實現시킬 수 있었던 決定的 時期가 있었던 點을 考慮한다면 一面 수중이 가지만 지나친 武力依存論은 오히려 世界輿論에 好戰的이라는 印象을 줌으로서 友邦 美國으로부터도 武力統一方案의 포기를 強力히 忠告받는 處地였다.

(3) 4.19 以後 5.16 까지

4.19 革命에 依해서 政權을 引受하게된 民主黨政府의 統一方案은 自由黨의 관고한 武力統一論을 철회하고 「南北總選舉에 依한 平和統一」이라는 새바原則을 따르게 되었다. 이와같은 立場에서 民主黨政府는 1960年 8月에 發表된 外交施政方針에서 「北進統一과 같은 무모하고 無計劃的인 슬로건을 止揚하고 UN決議를 존중하며 UN監視下에 南北韓을 通한 自由選舉에 依해 統籌政策을 遂行한다」고 闡名하였다.

이러한 民主黨政府의 政策表現가운데 自由黨政府와 달라진 것은 「UN決議에 依한」이란 文句를 「UN決議를 尊重하며」로 바꾼點이다. 이는 亞阿新生國들이 大挙 UN會員國으로 加入함에 따라 UN會員國數가 近 100 餘個國으로 增加한 現實을 考慮한 措置였다.

4.19 以後의 混亂속에서는 또 한편 「맨스필드」美上員議員의 中立化 統一論과 美,日등의 一部 海外僑胞들의 主張들이 國內에 波及되어 革新系와 保守野黨一角에서 까지 南北交流, 中立化統一論을 공공연히 主張하기에 이르렀고 一部 言論 및 學生, 青年團體들이 이에 同調하여 民間의 統一論議는 混亂相을 免치 못하였다.

이에 對하여 政府는 中立化統一의 非現實性和 共產主義者들의 基本的인 意圖를 경각시키면서 中立化統一方案에 對한 反對의 立場을 分

明히 하였다. 民主黨政府는 結局 短命으로 因하여 具體的이고 實踐的인 統一政策을 實施하지 못한채 5.16을 맞게되었다.

(4) 5.16以後 10月維新까지

軍事革命政府가 統一問題에 對하여 우선적으로 取한 조처는 極度에 違한 國內政局의 混亂과 反共體制의 弱화, 統一論議의 無秩序를 克服하고 國論의 一致를 圖謀하는 일이었다.

이와같은 軍事革命政府의 努力은 民政移讓後 共和黨政府에 依해 그 대로 繼承되어 「先建設 後統一」이라는 口號아래 統一方案의 論議보다는 統一을 爲한 力量의 培養에 重點을 두는 方向으로 進退되었다.

60年代를 通해 이와같은 統一問題에 對한 基本立場은 一貫되게 견지되어 感傷的인 空論이나 非現實的인 統一論議가 排摯되었고 本格的인 勝共統一政策推進을 爲한 착실한 準備가 이루어졌다.

對 UN政策은 종래까지의 UN監視下 自由總題學라는 統韓原則이 固守되었으나 1968年 第23次 UN總會를 契機로 UN의 現實에 맞추어 종래 韓國問題의 自動上程方式을 裁量上程方式으로 轉換하여 UN을 通한 統一接近戰略에 다소 容融성있는 變化를 보여주었다. 國內的으로는 國民들의 上昇하는 統一與論에 副應하면서 長期的이고 組織的인 統一問題研究를 爲해 1969年 3月 1日 國土統一院을 充足시키는등 國內政治의 安定과 經濟發展의 基礎위에서 새로이 統一의 希望을 고무하였다.

1970年代에 들어서면서 政府는 平和統一을 爲한 實踐的方案을 더욱 具體化하고 積極的인 統一意志를 다짐하게 되었다.

朴正熙大統領이 1970年 8.15慶祝辭를 通하여 平和的祖國統一이라는 命題를 提示하고 促求한것을 契機로 政府의 統韓政策은 劃企的인 轉

換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8.15 平和統一構想은 8月 12日 南北 赤十字會談提議로 具體化되면서 平和統一政策은 南北間의 人道的 接觸, 非政治的 交流, 政治的對話라는 三段階統一接近方案으로 公式化되어졌다. 이와같이 70年代에 들어서 平和統一構想이 具體化하게된 背景으로는 國際的인 緊張緩和의 進전과 周邊情勢의 急速한 變化에 適応하려는 韓國政府의 積極的인 意志가 크게 作用하였다.」 政府는 1972年 7月 4日 平和, 自主, 民族大同團結이라는 統一基本原則에 對한 南北間의 合意를 거쳐 歷史的인 共同聲明發表를 契機로해서 本格的으로 南北對話를 主導하고 「對話를 통한 接近」 「對話를 통한 平和」 「對話를 통한 統一」을 促求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對話努力에 보조를 맞추고 國際的인 環境에 積極的으로 對処하기 위해서 朴大統領은 1973年 6月 23日 「平和統一外交政策에 關한 大統領特別宣言」을 發表함으로써 祖國統一에 關한 一貫된 意志를 闡明하고 「先平和後 統一」이라는 現實的인 方案을 구축하였다.

6.23 宣言에 提示된 7個項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祖國의 平和的統一은 民族의 至上課題이다.
- ②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維持되어야하며, 南北韓은 서로 內政에 干渉하거나 侵略하지 말아야 한다.
- ③ 南北對話의 具體的인 成果를 위해 忍耐와 誠實로써 계속 努力해야 한다.
- ④ 北韓이 國際機構에 參與하는것은 反對하지 않는다.
- ⑤ 北韓과 함께 UN에 加入하거나 同時招請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 ⑥ 大韓民國은 互惠平等原則下에 理念體制를 달리하는 모든 國家

와도 門戶를 相互開妨할것을 促求한다.

- ⑦ 大韓民國 外交政策의 基本은 平和善隣이며 友邦과의 紐帶는 더욱 공고히 해갈 것이다.

以上과 같은 6.23 宣言은 7.4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을 再確認하고 그 바탕위에서 祖國의 統一을 成就할때까지 過渡的이고 잠정적인 措置로서 南北韓間에 平和的關係를 定着시킬 수 있는 現實的 方案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一貫된 韓半島 平和追求政策은 1974年 1月 朴大統領의 年頭記者會見에서 發表된 南北韓不可侵協定提議에 具體적으로 提示되었다. 이와같이 南北對話開始以後 政府가 一貫되게 追求해온 平和統一方案은 1974年 8月 15日 第29週年 光復節 朴大統領 慶祝辭에서 「平和統一基本三原則」으로 定着되었다. 朴大統領은 同 慶祝辭에서 7.4 南北共同聲明과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의 基本精神에 立脚하여 南北對話를 조속히 正常化하고 平和를 定着시키는데 誠實한 努力을 기울여줄것을 北韓共產主義者들에게 促求하면서 다음과 같이 平和統一의 基本原則을 申明하였다.

- ① 南北韓은 相互不可侵協定을 체결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켜야 한다.
- ② 南北對話를 誠實히 進行시켜야 하며 南北間에 相互門戶를 開放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등으로 相互信賴를 회복해야 한다.
- ③ 以上과 같은 바탕위에서 公정한 選舉管理와 監視下에 土着人口比例에 依한 南北韓 自由選舉를 實施하여 統一을 이룩한다.

以上과 같은 平和統一을 爲한 三大原則은 「先平和後統一」이라는 實踐段階를 再確認한 것이다.

2. 平和統一의 長期構想

第2次 世界大戰以後 東西世界の 이데올로기의 分極化過程에서 國土가 兩斷된 分斷國으로써 分斷을 克服하고 統一을 이룩하는데 成功한 國家는 하나도 없다. 東西間에 冷戰이 激化하던 時期에는 武力이 統一手段乃至 領土併合의 手段으로 登場하기도 했지만 東西間의 冷戰的 對決關係에서 武力行使를 통해 統一을 成就하는데 成功한 事例는 없다. 1950年代의 6.25 動亂은 北韓側이 武力에 依하여 韓半島全域을 共產化 統一하기 위해 挑發한 戰爭이었다.

그러나 共產側의 이와같은 企圖는 UN 깃발아래 UNG 自由陣營의 參戰으로 阻止되었고 國府와 UN군이 38度線以北으로 反擊作戰을 擴大하여 統一의 展望이 보였으나 中共의 介入으로 目的을 達成하지 못했다. 따라서 武力行使가 統一의 手段이 될수 없다는 것은 第2次 世界大戰以後의 東西關係가 展開되어온 力學의 論理에서 證明되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면 武力行使와 같은 軍事的征復을 前提하지 않는 統一接近方法은 存在할 수 없을 것인가? 바꾸어 말하면 이 設問은 平和의 手段에 依한 統一은 可能한 것인가에 關한 設問이다. 이에 對한 應答은 共產主義者들에게서는 容易하게 도출될 수 있다. 그들은 레닌의 平和共存理論, 毛沢東의 人民革命理論의 戰略戰術化에 依하여 平和的方法으로 赤化統一이 可能하다고 主張할 것이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民主陣營에서는 이데올로기의으로 敵對하고 있는 分斷國家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体系的理論의 整備가 없고 西歐 社會學者들이 抱括적으로 取扱한 統合理論(Integration theory)가 운데도 自由, 共產의 이데올로기가 對立하고 있는 分斷國들의 平和的

인 政治統合의 問題는 取扱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러 東西間에 冷戰이 解決되고 緊張緩和趨勢가 登場함에 따라 東西間에 造成되는 緊張緩和, 和解 (detente), 그리고 協力の 論理를 分斷國의 平和的 政治統合의 課題에 代入시키려는 理論的 試圖가 行해지기 始作했다.

美國 콜럼비아 大學 즈비그뉴, 브르제진스키 (Zbigniew Brzezinski) 教授가 發表한 4 段階 平和統一方案은 이와같은 理論的인 試圖의 代表的 例로 指稱할 수 있다. 브르제진스키教授는 이데올로기의 對立하고 있는 韓半島가 平和적으로 統合되기 爲해서는 南北關係가 다음 4 段階로 變遷發展될 수 있어야 한다고 展覽했다.

즉 第1 段階는 直接的 對決關係, 第2 段階는 衝突과 競爭의 混合關係, 이 段階를 거쳐 第3 段階는 制限된 協調關係, 맨 마지막 第4 段階에서는 広凡한 協助關係가 形成된다고 하는바 적어도 南北韓이 現在의 不和와 体制의 相異性에서도 不拘하고 平和적으로 統合되기 爲해서는 이같은 4 段階의 變遷을 거쳐야한다고 主張했다. 東西關係의 解決의 進化過程에서 推論된 이 理論은 그 成果가 實證되지 않은 하나의 假說에 지나지 않지만 적어도 이 假說은 다음 3가지 事實과 關聯하여 政府의 平和統一을 爲한 中長期構想設定의 理論的 基礎로 活用될 수 있다.

첫째로 70年代의 韓半島 周邊情勢가 武力에 依한 韓半島의 現狀 打破를 希望하지 않으며 萬一 統一을 爲한 武力對決의 可能性이 增加된 경우 韓半島의 統一보다는 分斷의 現狀固定化를 強要할 國際關係가 發展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둘째는 UN의 勸告에 基礎한 韓半島의 平和統一可能性이 全無해졌다는 事實이다.

北韓이 UN總회의 勸告를 拒否하는 限 UN의 統韓決議案은 實效를 見을수 없는 것이며 設使 北韓이 UN의 勸告를 受諾한다고 해도 南北韓이 50年代의 休戰線을 中心으로 높은 軍事障壁을 쌓은 가운데 4半世紀동안이나 相互異質化의 過程을 걸어왔기 때문에 南北間에 가로 놓인 이같은 制度上의 差異가 土着人口比例에 基礎한 自由總選舉의 實施만으로 奇蹟的으로 解消될 수 있다는 事實이 証明되지 않는 限 平和的인 政治統合의 結果를 期待하는 것은 極히 어려운 問題로 보워지는 것이다.

셋째는 政府가 以上の 두가지 判斷에 依拠하여 韓半島의 統一을 平和的으로 成就하기 위해 南北間의 相互武力行使勳渠를 提案하는 8.15宣言을 發表했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政府는 이와같은 段階說을 平和統一을 爲한 可能한 論理로 判斷하고 이에 立脚하여 南北關係展開의 4段階構想을 定立하였다.

即 第1段階는 對立關係로서 50年代와 '60年代의 南北關係가 이에 該當하는 것으로 보았고 第2段階는 南北間의 衝突과 競爭이 混合되는 關係로서 現時點의 南北韓關係로 생각했으며 第3段階는 交流關係로써 南北間의 對話가 열리고 共榮에 對한 合意가 이루어짐으로써 諸般分野의 交流가 促進되어 國土分斷에 起因하는 民族的 苦痛과 不便이 輕減되는 時期로 보았다. 마지막 第4段階는 南北間의 分野別 協力과 交流가 增進되고 南北間에 異質的 要素가 縮少되는 反面 民族的 同質性의 領域이 擴大됨으로써 南北이 平和的으로 統合될 關係가 整備되는 段階로 보았다.

結局 南北統一은 第4段階以後에 解決될 것으로 展望했다. 그리고 南北關係 變遷의 諸段階는 狀況要素를 中心으로 可變性을 지니기때문에 將次에 關한 限 具體的인 時期判斷을 留保할수밖에 없다.

3. 政府의 平和統一努力

70年代에 접어들면서 現狀維持(status quo)를 基調로 하는 緊張緩和과 平和共存의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는 現今の 情勢는 東北亞의 國際關係에 있어서 現狀變更要因으로 評價될 수 있는 韓半島의 統一에 關해서는 否定的 分岐기를 造成했다.

다시 말해서 強大國들은 韓半島의 統一보다는 分析의 現狀固定化에 關心을 갖는 傾向을 보이기 始作했고 이러한 境邊情勢속에서 우리는 統一에 對한 希望보다는 統一에 對한 希望을 상실당할 危機要素를 窺보게 됐던 것이다.

더욱 不幸한 것은 休戰期間을 利用하여 武力增強을 서둘러온 北韓이 挑發的策動으로 韓半島의 緊張이 高潮되고 우리는 그러한 北韓의 南侵可能性에 對備하여 總力安保態勢를 가다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事實이다.

[補]

休戰以後의 갖가지 挑發事件과 休戰協定 違反事件은 世界史에 類例가 없을 程度로 奸惡한 当事者임이 判明되고 있지만 우리는 民族統一이라고 하는 民族史的要請에 따라 南北對話를 열었고 또 7.4 南北共同聲明으로 南北間에 履行해야 할 大原則을 内外에 宜言했음에도 不拘하고 이 原則들이 北韓當局의 一方的인 破拋로 因하여 유린되고 또 外面되고 있음을 볼때 北韓과의 約束이 意味가 있느냐 하는 根本問題까지 提起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眞實한 뜻을 認識하고 인젠가는 南北統一의 必要性에 不可不同調할 時期가 到來할 것이라 믿으면서 우리는 南北對話에

臨하고 있다. 忍耐와 自制를 거듭하면서 自体의 統一力量을 키우며 對話를 主導해가면 北韓은 스스로가 對話의 테이블에 끌려들어올 것으로 믿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北韓보다 優越한 힘을 培養하는 問題야말로 生存을 위한 絶對條件이며 統一努力의 要素임을 強調하지 않을 수가 없다.

不斷히 加해오는 北韓의 各種挑發과 對南赤化統一의 野慾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北韓 共產主義者들을 견제하기 위한 唯一한 方途가 빈틈없는 總力安保態勢에 있음을 銘心해야겠다.

이러한 不幸한 狀況속에서도 우리는 統一을 이룩하기 위해서 새로운 選擇을 必要로 하였다.

1970年 8月 15日 朴大統領은 다음과 같은 平和統一構想을 發表했다.

① 統一은 반드시 平和的으로 이룩해야 한다. 統一이 時急을 要하는 民族의 至上課題라고 하여라도 同族相殘의 戰爭은 反對해야 한다.

② 北韓은 武裝共匪의 南派等 모든 戰爭挑發行爲를 즉각 中止하고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企圖의 拋棄를 内外에 申明하고 이를 行動으로 突証해야 한다.

③ 이러한 우리의 要求를 北韓이 受諾한다면 南北間에 가로놓인 人爲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해 나아갈수 있는 劃企的이고도 現實的인 方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다.

④ 北韓은 더 이상 무고한 北韓同胞의 民生을 犧牲시키면서 戰爭準備에 狂奔하는 罪惡을 犯하지 말고 보다 善意의 競爭, 즉 民主主義와 共產獨裁 어느體制가 國民을 더 잘 살수 있게 할수 있으며 더 잘 살수 있는 條件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証하는 開發과 建設

發展과 創造의 競争에 나설것을 戒의한다。

이와같은 朴大統領의 8.15構想을 起點으로 우리는 1971年 8月 12日에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하여 南北關係를 對決의 構造에서 對話의 構造로 轉換시켰고 다시 朴大統領은 南北間의 理解를 增進하기 爲해서는 모든 問題에 關한 意見을 交換하는 對話의 門을 여는것이 必要하다고 判斷하여 1972年 5月 2日 李厚洛中央情報部長을 平壤에 보내어 歷史的인 7.4南北共同聲明을 實現시키는等 南北對話開設을 主導하였다。

平和統一은 一方에 依한 他方의 征服이나 一方의 原則을 他方에 強要하는 論理로는 實現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政府에서는 10月維新을 通하여 憲法上의 收復條項을 削除함으로써 平和統一에 對한 우리의 立場을 制度化하고 漸進的이고 段階的으로 統一을 成就한다는 方針을 立案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우리 政府의 方針은 다음과 같은 狀況判斷에 起因한다。

첫째로 現在의 南北韓은 理念과 體制가 相異하여 一挙에 政治的인 統一을 期할 수가 없기때문에 統一을 指向하는 過程으로서 民族的 同質性을 回復하고 體制收斂의 條件을 擴大해가는 일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南北間에는 50年代의 武力對決과 그에 뒤이어 不和가 계속 深化돼왔기 때문에 統一에 關한 原則合意가 具體化되기 爲해서는 相互信賴性 回復이 必要하며 그러기 爲해서 相互間의 接觸과 交流가 成果的으로 이룩돼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南北間에 解決해야할 懸案問題의 性格을 現實的 基礎위에서 再評價하여 可能한 解決을 모색하고 問題의 難易에 따라 優先順位를 考慮해야 한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判斷에 기초하여 우리 政府는 統一問題를 漸進的 段階的으로 解決한다는 立場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立場에서 分断으로 인한 民族的 苦痛과 不便을 하나씩々解決하기 容易한것부터 解決해 나감으로써 그러한 過程에서 南北間의 敵對感을 緩和하고 相互信賴 雰圍氣를 造成하여 民族同質性的 回復을 促進함으로써 平和的 統一을 成就한다는 現實的 方案을 定立했던 것이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北韓은 이와같은 우리側의 現實的 統一接近方法에 適応할 수 있는 體制內的 準備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것이 武力에 依한 對南赤化를 위한 兵營體制이며 경직된 閉鎖體制이기 때문에 南北對話도 그들의 赤化統一目的에 奉仕하지 않는 限對話의 교착은 너무도 當然한 귀결이었다.

따라서 우리 政府는 2年間의 對話經驗을 기초로 하여 北韓의 體制的 硬直性을 緩和할 수 있는 環境의 造成없이는 對話에 依한 統一接近이 困難하다고 判斷하고 1973年 6月 23日 平和統一外交政策을 宣言하였던 것이다. 同宣言으로 우리는 南北關係의 歷史的 現實을 現實대로 認定하는 토대위에서 平和的으로 統一을 成就할 수 있는 길을 摸索하고 北韓에 對한 封鎖政策을 解除하여 그들로 하여금 外部情勢를 意識케 함으로써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企圖의 無謀性을 自覺케 하고 우리의 漸進的 平和統一接近方案에 호응하도록 誘導한다는 政策的 立場을 取하였다.

6.23 宣言은 現段階에서 우리의 平和統一原則을 集約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

① 民族의 至上念願으로서 祖国統一은 반드시 平和的 方法에 依해 自主적으로 成就돼야 한다.

② 南北韓은 統一이 成就될때까지 過渡적으로 UN에 同時加入함으로써 UN憲章体制下에서 서로 侵略하지 않고 干涉하지 않는 條件에서 平和統一을 성취할 수 있는 南北關係를 定立한다.

③ 祖国統一의 現實的 障礙要因인 南北間의 體制差異는 民族史的 正統性에 立脚해서 克服돼야 하며 이를 促進하기 위해서는 相互理解와 信賴의 발판을 넓혀 民族的 同質性을 回復하여 統一條件의 實質的 改善을 이룩한다.

④ 南北韓間에 가로놓여 있는 諸般問題를 成功的으로 解決하기 위해서는 現在의 南北關係에서 解決하기 容易한 問題부터 始作하여 점차 어려운 問題의 解決로 指向하는 段階的이며 점진적인 努力을 傾注한다.

⑤ 祖国統一을 위한 國際的 環境을 造成하기 위해 우리는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약도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門戶를 開放한다.

이러한 原則을 具體化하는 조치로서 朴大統領은 1974年 1月 年頭記者會見에서 南北韓不可侵協定을 提議하여 韓半島 平和關係 樹立을 위한 現實的代案을 提示한바 있으며 더욱기 1974年 8月 15日 第29次 光復節에서는 平和統一을 위한 우리의 基本原則을 다음과 같이 申明하였다.

첫째 ;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南北은 相互 不可侵協定을 締結하여야 한다.

둘째 ; 南北間에 相互門戶를 開放하고 信賴를 回復해야 하며 이를 위해 南北對話를 誠實히 進行시켜야 하며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 이 바탕위에서 公正한 選舉管理와 監視下에 土着人口比例에 依한 南北韓自由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을 이룩해야 한다.

4. UN을 통한 統一에의 接近

70年代에 들어와서 南北韓間에는 UN加入問題를 둘러싸고 치열한 大論爭을 벌이고 있다.

즉 韓國이 朴大統領의 6.23 特別宣言을 통해서 「國際聯合 大多數 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고 闡明한데 對하여 北韓 金日成은 「高麗聯邦共和國」과 같은 國号下에 單一加入할것을 主張하면서 南北韓 UN同時加入이라는 民族永久分斷論을 提起하고 있다.

現在까지 提議해 온 金日成의 主張을 綜合해 보면

① .南北韓 同時UN加入은 韓半島의 永久分斷과 關聯되는 것이므로 絶对反对하며

② UN에 읍서버 代表部를 設置하는 것과 UN加入問題는 別個의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즉 北韓은 UN本部에 代表部를 設置하고 UN 專門機關에 韓國과 同時에 參與함으로써 同時加入이 아닌 事實上의 同時加入狀況속에서 單一加入을 主張하는 策略一辺倒의 心理戰攻勢를 展開하고 있다.

여기서 問題가 되는것은 果然 北韓側의 主張과 같이 UN同時加入이 民族分斷을 永久化하는나 하는 点이다. UN의 歷史는 加入問題 自体가 民族 乃至 國家分斷과는 아무런 相關關係가 없음을 證明하고 있다.

例를 들면 첫째 蘇聯의 경우 對外的으로 엄연히 하나의 主權國家임에도 不拘하고 UN에서는 蘇聯「白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個 代表權을 갖고 있으며,

둘째, 東西獨의 경우 兩獨이 同時에 UN에 加入되었어도 兩獨은 決코 統獨의 意志를 拋棄한것으로 看做하지 않으며 또 한편 UN도 兩獨의 同時UN加入을 受諾함에 있어서 굳이「하나의 獨逸」또는

「 두개의 独逸 」与否에 關한 有權的結論을 내리지 않았다.

셋째, 「 탄가니카 」와 「 잔지바르 」가 「 탄자니아 」라는 單一 國家로 統合됨에 따라 UN代表權도 單一化된 先例가 있으며

넷째, 「 싱가포르 」은 「 말레이시아 」聯邦으로부터 獨立함으로써 別途의 UN代表權을 保有하게 되었다.

다섯째, 「 에집트 」와 「 시리아 」의 경우는 2개의 國家가 2개의 代表權을 保有하다가 하나의 國家 하나의 代表權으로 統合되고 다시 2개의 國家, 2개의 代表權으로 分離된바 있다.

以上과 같이 UN은 憲章에 規定된 義務를 受諾하고 UN에 依하여 同義務를 遂行할 意思와 能力이 있다고 認定되는 모든 平和愛護國 (peace loving state)에게 加入의 門戶가 開放되나 UN의 加入이 바로 加入國에 對한 모든 會員國들의 承認을 意味할 수는 없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客觀的狀況을 韓半島에 適用시켜 볼때

① 南北韓의 UN加入이 바로 雙方間의 承認이나 分斷永久化의 意味로 解決될 수 없는것이기 때문에

② 어떠한 形態로든 統韓만되면 UN代表權의 單一化는 極히 간단한 節次에 不過하므로

③ 北韓이 一方的으로 聯邦制를 主張하면서 金日成처럼 「 聯邦制에 依한 單一加入이 아닌 同時 UN加入은 民族分斷을 永久化시킨다 」고 固執하는 것은 國際情勢의 現實을 外面한 억설에 不過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補]

北韓에서 主張해오던 統一方案의 모두가 一貫성이 없는 宣傳 爲主의 政略的 提案이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려니와 特히 그들의 對UN 政策에서 빛어내고 있는 南北韓 統一方案은 論理的으로나 現實的으로 矛盾撞着的 自己矛盾속에서 맴돌고 있다. 國際關係에서 韓國의 活動 舞台와 比較하여 劣等感과 不安感을 느낀 北韓은 國際社會에서 韓國을 比방, 견제하는데 力點을 두어왔고 또 韓國과 同等한 資格을 갖인 主體임을 強調해 오다가 이미 韓國이 參加하고 있는 國際機構에 參加하여 (WHO, IPU, 最近에 UNESCO 에 加入) 「두個의 韓國」을 既定 事實化하려는 政策을 追求해 왔다. 그러다가 막상 韓國政府에서 6.23 平和統一外交政策을 宣言하여 南北韓 同時 UN加入의 門戶를 開放하자 北韓은 同時UN加入이 民族의 分斷을 永久化한다고 逆攻勢를 펴고 있다. 그들이 推進해오던 南北韓 國際機構에의 共同參與는 民族의 分斷이 아니고 오늘날 國際社會에 先例가 있는 現實的이고 合理的인 UN同時加入은 民族分斷의 永久化를 가져온다고 하는 主張이야말로 語不成說이며 平和的인 祖國統一을 한사코 忌避하는 証拠로서 그들의 속셈을 역역히 들어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南北韓의 同時 UN加入은 北韓의 主張과는 反對로 韓半島 緊張緩和의 國際的 与件을 조성함으로써 祖國의 平和統一을 앞당기는 機能을 遂行할 것이다.

獨斷과 我執에 사로잡혀 戰爭準備에 狂奔하고 있는 北韓이 UN憲章秩序에 편입된다면 오늘의 國際情勢下에서 戰爭挑發行爲가 얼마나

無謀한 짓인가를 實感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分断國家 一般理論」의 立場에서 보더라도 南北韓 同時 UN 加入은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는 機能을 分明히 遂行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基本的으로 分断國家는 分断地域 双方이 다같이 一方的으로 國家的 正統性 (National legitimacy) 을 主張함으로써 緊張이 高潮되고 있다. 따라서 同時 UN 加入이 實現되면 相對方의 法的承認 問題는 且置하고라도 우선 國際的 正統性競爭이 緩和乃至 消滅되므로 緊張要因이 除去되며 相互交流과 協力の 國際的 要件이 조성되게 될 것이다.

同時에 國際的側面에서의 南北韓 交流과 協力の 強化는 國內的 側面에서의 相應하는 交流과 協力を 誘發하게 될 것이며 이는 緊張緩和의 國際潮流속에서 民族의 威信과 矜持를 드높이면서 祖國의 平和統一을 促進하는 實質的인 지름길이 될것임에 틀림없다.

5. 非政治分野 優先主張의 內容

우리側은 6.25와 같은 同族의 悲劇이 再現되는 것을 防止하고 人爲的 障壁으로 南北이 分断됨으로서 겪고 있는 民族的 苦痛을 緩和乃至 解消시킬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目標로서 平和的 統一을 成就하기 위하여 非常한 國際的 關心과 뜨거운 國民의 聲援아래 北韓과의 對話를 開始하였다.

解放以後 계속되어온 南北間의 斷切로 因하여 南北韓의 現實은 相異한 個體로 發展되어 왔으며 斷切의 時代에 終止符를 찍고 統一을 成就시키기 위한 南北韓의 接觸擴大方案도 서로 相反된 主張으로 나타나게 됨을 그간의 赤十字會談과 調節委會談을 通하여 뚜렷히 알게

되었다.

北韓側은 무엇보다도 南北韓이 高麗聯邦制를 實施하여야 된다는 것을 내세워 政治協商을 優先해야 된다는 立場을 強調했으며 또한 美軍의 撤収, 南北間의 兵力減縮, 軍需物資導入中止등을 내세워 軍事協商을 先行시켜야 한다는 先政治軍事協商, 後非政治分野交流를 主張하였다. 이에 反하여 우리側은 南北韓間의 접촉은 우선 人道的이며 社會文化的 經濟的交流등과 같은 非政治的分野부터 始作하여 南北間의 信賴분위기를 이루고 난 以後에 政治軍事的 協商이 行하여져야 한다는 것을 骨子로 하는 先非政治分野交涉 後政治協商을 主張하였고 南北間의 基本立場이 이와 같이 銳利하게 對立됨에 따라서 南北韓間의 意見一致가 困難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側이 내세우는 非政治分野 優先 交流案에 따른 非政治分野로서는 1973年 6月 12日에서 6月 14日까지 계속된 南北調節委員會 第3次會議에서 李厚洛委員長이 다음과 같은 15個項의 交流를 提案한 바 있다.

즉 經濟分野로서

① 經濟人 交流 ② 物資의 交流 ③ 科學技術의 交流 ④ 資源의 共同開發 ⑤ 商品展示會의 交換開催 ⑥ 商品의 交換常駐등을 논의하여 經濟的 相互利益을 追求할것을 主張했으며 社會文化分野에서 ⑦ 學術文化 分野의 交流 ⑧ 體育分野의 交流와 國際競技에의 單一팀 構成 ⑨ 映畵 舞台藝術의 交流 ⑩ 考古學과 民族史의 共同研究와 開發 ⑪ 固有言語의 保存을 위한 研究 ⑫ 各種 社會人士와 團體의 交流 ⑬ 記者의 交流와 常駐 ⑭ 書信電話 電報등 通信의 交流 ⑮ 觀光分野의 交流등을 提案하였다.

우리 側이 主張하는 非政治分野 優先交流案에 있어서의 非政治分野에
는 李委員長이 主張한 15個 項目以外에도 赤十字會談에서 論議되는
人道的次元의 家族찾기도 이에 包含됨은 勿論이다.

그밖에도 經濟的分野로서 可能한 交流形態로서 南北韓 共同漁勞가
提起될 수 있으며 또한 非武裝地帶의 多目的的開發등을 南北이 協力
하여 推進함으로써 相當한 經濟的 利益이 追求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대 우리 側의 非政治分野 優先交流는 李厚洛委員長의 提議에서
밝혔듯이 까다로운 政治體制에 관한 論議나 軍事的 問題에 관한 論
議는 南北이 서로 될 수 있는 狀態에 到達하기까지 연기하고 政
治軍事問題以外的 모든分野에서의 南北交流를 實施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우리 側은 南北社會의 完全한 相互開放을 과감히 主張
하였던 것이다.

南北社會의 完全한 相互開放을 위한 提議는 政治軍事的面以外的 모
든分野에서 南北交流를 實現시키겠다는 우리 側의 決意를 反映하고 있
는 것이다.

6. 不可侵協定協議의 正当性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하고 祖國의 平和統一을 成就하기 위해서는
南北韓이 서로 敵對해서 相對方을 實力으로 攻擊 征服한다든가 相對
方의 內政에 干涉하여 非難 中傷한다든가 또는 現在 南北關係를 規
律하고 있는 休戰協定을 無視하든지 하는 行爲를 막는것이 先決問題
이다. 1974年 1月 18日 年頭記者會見에서 朴大統領이 提議한 南北
間 相互不可侵協定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다.

朴大統領이 提示한 不可侵協定의 內容을 보면 그點을 더욱 分明히

理解할수 있다.

첫째 「南北이 서로 武力侵犯을 絶對로 않겠다는 것을 滿天下에 約束할것」이라는 內容은 戰爭을 抑制하기 위한 가장 基本的인 要件을 말하는 것이다.

北韓側은 「銃이 있으니 銃擊事件이 나고 서로 武力을 增強하고 있기 때문에 戰爭이 일어날 要因이 增大되며 緊張狀態가 조장된다」고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戰爭을 抑制하기 위해서는 서로 軍備를 縮少하고 兵力을 減縮하는等 武力을 줄이는 努力이 앞서야 된다」고 主張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무엇보다도 戰爭을 해서는 않되겠다고 하는 意思가 南北間의 平和定着에 重大한 意味를 갖는다는 事實을 無視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式의 論理에 따르면 이 世上에 있는 모든 兵器는 勿論, 人命을 殺害할수 있는 一切의 기구들까지 없애야 하고, 또 兵力化 할수 있는 軍人이나 警察官등 까지도 完全히 없애야만 戰爭이 일어나지 않을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主張대로 現在의 軍備를 多小減縮한다든지 兵力을 10萬名 程度로 感縮한다고 하더라도 戰爭이 일어날수 있는 要因이 排除되었다고 할 수는 決코 없는 것이다. 戰爭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하는 問題는 兵力이나 軍備의 다과보다는 相互間에 勢力均衡이 維持되느냐 아니면 破壞되느냐하는 問題와 더 源泉的으로는 武力侵犯을 할 意思를 가지고 戰爭準備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만약 南北韓이 서로 武力侵犯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굳게 約束하고 이를 滿天下에 公표해서 서로가 絶對로 相對方을 武力으로 侵犯하지 않는다는 保障만 한다면 韓半島에는 반드시 平和가 定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相互保障이 成立될수 있을 때에는 彼
此가 莫大한 軍備資源을 平和産業으로 轉用하여 보다 福된 社會를
이룩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側이 主張하고 있는 軍備縮少나 兵力減縮問題보다는
이에 앞서서 南北韓이 서로 武力侵犯을 하지 않겠다는 相互不加侵의
約束을 分明히 그리고 굳게 다짐하는 일이 보다 重要的 것이다.

이러한 約束은 오늘날의 南北關係에 있어서 現實的으로 가장 要望
되는 課題이며 또한 가장 바람직한 일로서 우리는 여기에 不加侵協
定 提議의 現實性과 妥當性 및 正當性을 充分히 理解하게 되는 것
이다.

둘째 「南北은 相互內政干涉을 하지 말것」이라는 內容에 對해서는
앞에서도 說明한 바로서 南北이 서로 相對方의 存在權을 自己側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同等하게 認定하고 平和的으로 共存해 나가기 위
한 하나의 前提로서 必要的 要件이다.

비록 武力에 依해서 直接 侵犯하는 일은 없다 하더라도 相對方의
存在權을 認定하지 않고 「相對方은 언젠가는 우리側에 併合하거나
吸收해야 할 存在」라는 意識을 가지고 相對方의 理念이나 體制 또
는 諸般 施策과 社會狀況등을 件件이 干涉하고 그를 비방 非難하며
是非를 일삼는다면 그것은 政治的 文化的 社會的인 間接的 方法으로
相對方의 權益을 侵犯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에 紛爭要因이나 緊張要
因을 增大시키게 된다.

그것은 結局 直接侵略을 할수있는 길은 트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不可侵協定을 締結하는 根本精神에는 크게 違背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相互不可侵協定締結의 意義는 直接侵略이건 間接侵略이건

間에 一切의 侵略的 要因을 排除하자는데 그 核心이 있는 것이다. 相互武力侵犯의 拋棄로 直接的인 戰爭要因을 除去하는 同時에 相互內政不干涉 原則의 約束으로 紛爭과 緊張의 助長 要因이 되고 있는 間接侵略의 危險性을 除去하는 것이 오늘날 南北間의 不信과 緊張狀態를 緩和하는데 가장 緊要한 일이며 따라서 그것은 平和的 統一基盤의 構築에도 크게 寄與하는 길이기 때문에 不可侵協定の 締結이야말로 오늘날 南北關係의 改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셋째 「如何한 경우라도 現行 休戰協定은 그 効力を 존속시킬 것」이라는 內容은 南北相互間의 敵對關係의 拋棄와 武力增強의 中止 및 侵略的 排發行爲의 禁止 등으로 相互衝突의 要因을 除去하고 戰爭再發의 危險性을 實質적으로 除去하기 위해 必要한 것이다.

現在 南韓은 政治적으로나 法的인 意味에 있어서 休戰狀態로서 熱戰狀態를 잠시 中斷하고 있는 것 뿐이다.

만약 이러한 休戰協定을 破棄한다거나 또는 그協定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休戰協定の 効力を 認定하지 않는다면 政治적으로나 法的인 面에 있어서는 다시 熱戰狀態로 돌아가는 것을 意味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側이든 排發行爲를 姿行한다 해도 理論적으로는 何等에 日可 日否할 수 있는 根拠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相互武力侵犯의 禁止나 內政干涉의 斷切을 約束했다 하더라도 休戰協定の 効力を 認定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戰爭의 危險性을 除去하는데 있어서는 不充分한 點이 많은 것이다.

한 例를 든다면 現在의 南北分界線인 休戰線은 休戰協定에 依해 規定되어 있는 境界線인바 만약 休戰協定이 効力を 喪失한다면 그 分界

線에 對한 是非가 일어날 수 있는 危險性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最近 自 翎島 등 우리나라의 西海 5島 水域에 對해 北韓側이 休戰後 20年 以上이나 認定해 왔던 우리의 水域을 自己의 領海라고 생떼를 부리면서 武力侵犯을 姿行한것만 보더라도 그點을 우리는 充分히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休戰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北韓은 무려 17,000 余件에 달하는 大小 休戰協定 違反事件을 저질러 왔고 심지어는 非武裝地帶에 까지 攻擊用 兵器와 要塞施設 및 精銳 兵力을 投入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休戰協定의 違反은 韓半島의 平和를 威脅하는 가장 큰 要因中의 하나로서 이제부터라도 이 休戰協定은 徹底하게 遵守되어야만 韓半島의 平和는 保障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休戰協定의 遵守를 促求하고 그 効力의 계속을 認定할것을 다짐하는 不可侵協定은 南北間의 平和的關係의 維持를 위해서 時急하고도 緊要한 일로서 朴大統領이 이를 提議한것은 매우 時宜 適切하고 正當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朴大統領의 南北相互不可侵協定 提議는 그目的이나 內容 및 時期에 있어서 매우 適切하고 正當한 것으로서 한마디로 말해서 統一이 될때까지 南北이 平和共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方便이며 基本的 要件이라고 말할수 있는 것이다.

7. 政府의 統一政策의 理論的 背景

類例없는 民族相殘의 悲劇을 자아냈던 韓國動亂의 經驗에 비추어 이땅에서 다시는 戰爭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려니와 統一이 아무리

時急한 課業이라 해도 武力을 使用해서 이루는 統一은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政府는 1970年 8·15平和統一外交政策의 宣言以來 一聯의 對北提議를 通하여 平和統一政策을 具體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平和統一外交政策은 優先 韓半島에서 戰爭 勃發을 防止하여 早速한 時日內에 平和定着을 實現시키는 것이다. 政府는 平和定着 實現方案으로서 北韓의 UN加入을 구태여 反對하지 않으며 共產圈에 대해서도 門戶를 開放할 뜻을 明白히 한 6·23 宣言을 發表하여 平和定着의 國際的與件造成에 努力하는 한편 不可侵約束 相互內政不干涉 및 休戰協定の 効力 維持를 內容으로 하는 不可侵協定을 提議하여 南北韓 平和定着의 具體的方案을 提示하였다.

現在 韓半島의 平和는 南北韓 軍事力의 現狀凍結과 UN軍에 依한 韓半島의 安全保障을 骨子로 하는 이른바 「休戰協定體制」에 依하여 잠정적으로 維持되고 있는 實情이다. 休戰協定은 南北韓間의 政治的 問題를 앞으로 解決해야할 課題로 提示하였고 또 우리는 北韓의 軍事排絶을 옹衛하는 意味에서 休戰協定에 署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UN軍에 依한 韓半島安全保障이 永久的인 것이 아니고 韓半島 平和定着의 잠정적인 方案에 不適當한 것이다. 따라서 不安全的 休戰協定體制는 南北韓 相互不可侵協定으로 補完되어야 한다.

反面 ① 武力增強, 軍備競爭中止 ② 南北韓 兵力을 各各 10萬以下로 減軍 ③ 武器 및 軍需物資搬入中止 ④ 駐韓外國軍撤収 ⑤ 以上の 內容을 保障하기 위한 平和協定の 締結을 主張하는 北韓側의 소위 軍事 5個項은 基本的으로 韓國軍을 弱화시켜 南北間의 軍事的 均衡을 相對的으로 破壞하고 이를 利用하여 南侵을 敢行하겠

다는 그들의 상투적 對南赤化統一戰略이 음폐되어 있으므로 韓半島에 있어서의 平和定着을 위한 實質的인 方案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提案한바 있는 不可侵協定에 依하여 韓半島의 軍事的 安定化가 一段 成立되면 南北韓間에는 諸分野에 있어서의 交流와 協력이 推進되어야 한다.

現代 社会科学은 理念과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이른바 機能分野間의 交流와 協력이 可能함을 立証하고 있다.

「데이비드, 미트라니」(David Mitrany)에 依하여 定說化된 機能主義 (Functionalism)는 體制와 理念의 差異에 關係없이 理念的制約이 적은 機能分野間의 協력이 相異한 體制間에 可能함을 力說하였다.

이와같이 非政治的分野에서 조그마한 形態의 交流와 協력이 이루어지면 이 交流와 協力は 보다 큰 交流와 生産하는 波及效果 이른바 雪人效果 (Snow Ball Effect)를 갖어온다.

그러나 이러한 交流와 協력이 果然 體制와 理念 差異에서 發源하는 모든 葛藤과 緊張을 克服하고 하나의 秩序에로의 統合을 成就할 것인지에 關해서는 아직 分명한 解答이 주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60年代 初半부터 하나의 假說로 登場한 收斂理論 (Convergence theory)은 機能主義의 限界性 乃至 悲觀的 局面을 克服할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다.

收斂理論家들은 現代의 産業社會는 이데올로기의 制約을 벗어나서 점차 工業化와 都市化에 副應하는 方向으로 社會制度의 收斂化가 이루어지며 共產主義 政黨은 그社會와 國家가 工業化에 成功하여 豊饒를 供給할수 있는 限 그 이데올로기의 使命은 終了되고 다만 工業化의 要求에 副應하는 「管理者의 役割」만을 맡게 될것으로 展望하

면서 移轉現象은 처음에는 産業構造와 管理등 下部構造에서 나타나게 될것이지만 이것이 普遍化 될 경우 政治體制에서도 收斂化的 變化가 期待된다고 또한 展望하고 있다.

그러나 이 理論도 政策의 實踐原理로 採択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 첫째 經驗의 世界에서 予測可能한 推論이기는 하지만 事實로서 証明된것은 아니며

둘째 모든 國家의 發展經路와 目標을 單一化시키고 있다는 点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南北關係처럼 競争的 共存이 잠정적이거나 不可避하게 予想되는 狀況下에서는 收斂化的 變化를 期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韓半島의 경우는 新羅統一以來 1,900 余年의 民族的統一을 維持하여 왔으므로 南北韓間에 交流와 協力の 門이 열릴경우 구차스러운 機能主義 理論이나 收斂理論의 論理를 必用조차 없이 民族文化를 背景으로 한 民族的 同質化는 南北韓間에 加速的으로 進行될것으로 予想된다.

이와같은 狀態가 이루어질 경우 分斷으로 因한 모든 民族的 苦痛은 경감되고 實질上 政府의 統合만이 이루어지지 안했을 뿐 實질적으로 統一된 狀態와 類似한 狀況이 展開될것이다. 이와같은 段階에 이르면 南北 韓民族의 意思에 따라 統一政府樹立問題를 具體化시킬수 있을 것이다.

